시연 施連칼럼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고체古體

권 오 신(좌윤공파회장, 칼럼니스트)

제막식

좌윤공파종회(佐尹公派宗會)가 지난 11월 7일 안동 연원(燕院)에서 제막식(除幕式)을 가진 문정공(文靖公, 휘諱 희정希正 16世, 고려감찰어사高麗監察御史 증직贈職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좌의정左議政) 묘전비(높이 2.1m, 폭 1.5m)의 1,700자 음기는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박용설(朴龍卨) 서예인이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에 써진 고체(古體)를 응용해서 썼다. 일곱자 비에 새겨진 글씨가 고졸하고 넉넉하게 써져 후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비문을 읽을 수 있고 후일 고려(高麗)에서 근세까지 한 종중의 역사적 진실이 담긴 돌비가 된다.

414년 고구려(高句麗) 장수왕(長壽王)이 중국 길림(吉林) 집안현(集安縣)에 세운 선왕 광개토왕(廣開土王, 고구려 19대 왕, 375~413) 비는 현존하는 한국(韓國) 최고(最古)의 비석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도 100비 내에 올리고 자기네 동북아(東北亞) 역사(歷史) 편년(編年)에 넣었다.

금석학(金石學)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두고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는 중국 시안(西安) 비림(碑林)에 있는 모든 고비(古碑)를 두고 학술적(學術的) 역사적(歷史的) 평가를 내린다면 비문(碑文)의 내용이나 글씨의 수준이 첫 번째나 두 번 째쯤의 위치에 올려야 할 것으로 고증(考證)했다.

전혀 다듬지 않은 자연석 화강암(높이 6.39M, 너비 1.38~2m)에 전서에 가까운 예서 1775자가 음각(陰刻)되어서 더 거대하다. 글체는 전한(前漢) 시대에 유행했던 흐름이다. 호태왕비(好太王碑)는 청나라 봉건주의가 몰락되었던 조선 후기까지 확인되지 못함으로써 '신묘년조' 논란에다 155자 가량이 무리한 탁본으로 판독(判讀)을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제1면 1행에서 6행까지는 "시조 동명성왕(東明聖王)이 나라의 기틀을 세운 기록이다. 천제의 아들이시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며 알을 가르고 세상에 내려오시니 나면서부터 거룩한 △을 갖추셨다.〈중략〉 비류곡(沸流谷)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우셨다.

"제 1면 7행부터 3면 8행까지는 천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성을 고구려 영토에 편입시킨 광개토왕의 정복 전쟁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능비의 건립을 밝히는 마지막 부분은 3면 8행부터 4면 9행까지이다. 이런 역사기록이야말로 4세기 한반도와 중국의 역사 사회 문화 현황을 연대별로 살필 진실한 기록물이어서 중국에서도 절대 가치를 인정하는 국보로 보호받는다.

이곳을 방문했었던 한국화가(韓國畵家) 소산(小山) 박대성(朴大成) 화백은 집안에서 압록강을 바라보는 광개토왕(廣開土王) 능비를 처음 보는 순간 작은 산이 가린 것처럼 거대하게 보였다고 한다. 갑골문(甲骨文)에서 나온 전예서체의 글체를 보고 더 놀랐다고 한다. 글을 쓴 선지식이 밝혀졌다면 8세기 동아시아의 서성(書聖)으로 평가받았던 신라(新羅) 김생(金生, 711~)의 수준을 뛰어넘었을 것이라고 했다.

비석의 글체는 한 자 한 자 뼈가 살아있고 고졸한 느낌이 들다가도 휘몰아치는 폭풍우 같은 기가 서려 있고 글획마다 제비 꼬리 같은 아름다움이 살려진 글체가 천둥 벼락이 치는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일찍이 해동 대문장가로는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908? 경주 사량부)이다.

최치원(崔致遠)이 당에서 지은 '황소의 난' 격문은 지금도 유명하다. 고운(孤雲)의 격문을 본 반란의 주인공이었던 황소는 양심의 가책으로 비틀거리다 말에서 떨어졌다는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그런 최치원(崔致遠)도 신라(新羅)에 돌아와서는 6두품 벼슬로 천대받았다. 중국 양주에는 최치원 기념관과 최치원 마라톤, 백일장이 해마다 열린다. 중국에는 공자(孔子)가 없고 한국에는 최치원(崔致遠)이 없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김생은 글씨로 해동서성(海東書聖)에 올랐다. 4백 년을 앞서 김생을 능가하는 또 한사람의 서성(書聖)이 고구려 땅에 있었지만 광개토왕(廣開土王) 비문(碑文) 말미에 이름을 남기지 않아 필명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아쉬울 뿐이다.

박대성(朴大成) 박용설(朴龍卨) 등 금석문(金石文) 연구에 빠진 서예가(書藝家)들은 동아시아에 크게 알려진 안진경(顔眞卿)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호태왕비(好太王碑)의 글체가 빼어나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구려에서 유행했을 글체는 동아시아의 권력 구도와 문화를 집대성한다. 광개토왕(廣開土王)이 동아시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도 문화적 힘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 역사의 흐름이 이를 증명해 준다.

호태왕(好太王) 비는 인간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은 자연석이다. 원래는 부부(夫婦)석이었다. 어느 날 현몽에서 백발의 신령이 나타나 이 돌은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큰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바로 집안으로 걸어 들어왔다고 한다. 당시의 기술로서는 집채보다 더 큰 거석을 옮기는 기술이 없었으니 탄생부터 강대한 고구려(高句麗)의 기운을 받았던 신령(神靈)스런 돌이었다.

안동권씨좌윤공파종회(安東權氏佐尹公派宗會)는 일곱자 비에 새긴 비문 1,700자를 통해 전국 4만 명 후손들이 문정공(文靖公) 자손들임을 밝히고 고려와 조선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선대처럼 조선을 넘어 지구촌을 이끄는 후손들로 거듭날 것을 언약했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19〉

이재집(頤齋集)

권갑현 편집위원장

〈이재집〉은 권연하(權璉夏, 1813~1896) 공의 시문집으로 17권 9책이다.

공은 시조 태사공 31세로 안동권씨 복야공파이다. 출생지는 현재의 봉화 유곡(酉谷)이다. 부친 재륜(載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12세(歲)에 15촌숙 재덕(載德, 1762~1829)의 양자가 되었다. 자(字)는 가기(可器)이고, 아호가 이재(頤齋)이다. 학행으로 추천되어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고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다.

배위 정부인(貞夫人) 의성김씨(義城金氏)는 재칠(在七)의 따님으로 1808년에 나서 1879년에 72세로 졸했다.

공은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문인으로, 문천(文泉) 김희소(金熙紹, 1758~1837), 송서(松西) 강운(姜橒, 1772~1834) 등에게도 수학하였다. 공은 평소 긍암(肯菴) 이돈우(李敦禹, 1807~1884), 만산(萬山) 류치엄(柳致儼, 1810~1876), 신암(愼庵) 이만각(李晩慤, 1815~1874), 도산(道山) 윤최식(尹最植, 1815~1874), 복재(復齋) 강건(姜楗, 1817~1881),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 1827~1899) 등과 교유하였다.

공은 임천서원(臨川書院)의 원장을 지냈으며, 삼계서원(三溪書院), 임천서원 등에서 향약, 〈중용〉, 〈근사록〉 등을 강론하였다. 삼계서원이 훼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훼철된 이후에는 복설운동에 참여하였다.

공은 시문(詩文)을 만년에 직접 정리하기도 하였는데, 분량이 많고 옮겨적는 과정에서 오류도 있었다고 전한다. 공의 사후에 손자 권상기(權相耆, 1852~1909)는 김흥락으로부터 공의 행장을 받고, 또한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 1842~1910)에게 공의 묘갈명 찬술과 유문 정리를 부탁하였다. 공의 제자들이 공이 손수 편집한 원고를 교감(校勘)하고, 또 여러 선비의 교정을 몇 차례 거친 뒤 총 9책으로 편집되었다.

문집 간행 작업은 족질 권희연(權熙淵)이 주간하고 삼종손 권상익(權相益)이 원본을 필사하였다. 이후 저자의 문인과 족친의 도움을 받아 1906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권1은 148제(題)의 시(詩)이다. 저작 연도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자연경관과 감흥을 읊은 시, 도학시(道學詩)가 대부분이다. 또한 만시(挽詩)도 많아 스승 유치명 등 총 62인에 대해 시로써 애도하였다.

권2는 소(疏)(3), 서(書)(40)이다. 권3~5는 서(書)(136)이다. 권6은 잡저(雜著)(10)이다.

권7은 서(序)(21)이다. 이 중에 권한공(權漢功)·권중화(權仲和)·권극립(權克立)·권봉(權封) 등 4인의 〈암고세고(巖皐世稿)〉〈영가세고(永嘉世稿)〉로 간행)의 서문이 있다.

권8은 기(記)(16)이다. 〈독역재서식기(讀易齋棲息記)〉는 공의 선조 권동보(權東輔)가 지은 석천정사(石泉精舍)의 독역재에 대한 기문이고 〈최락당중건기(最樂堂重建記)〉는 퇴계의 문인 과재(果齋) 장수희(張壽禧)의 당우 중건기이다. 〈증첨정권공정려중건기(贈僉正權公旌閭重建記)〉는 1737년에 세운 권극상(權克常)의 정려를 1884년에 중수한 내용을 기록한 기문이다. 〈이재기(頤齋記)〉는 1851년에 지은 공의 서재에 대한 기문이다.

권9는 발(跋)(19), 명(銘)(4), 상량문(上樑文)(5)이다. 〈서송서강공답문서독첩후(書松西姜公答問書牘帖後)〉는 공이 1832년 강운(姜橒)의 강회에 참석하고 편지로 〈대학〉 수십 항목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문답(問答) 서독첩(書牘帖)을 보고 1872년에 지은 글이다. 그 외 권정침(權正忱)의 〈평암집(平庵集)〉, 권동보(權東輔)·권동미(權東美)·권래(權來)·권호문(權好文) 4인의 〈암천세고(巖泉世稿)〉에 대한 발문이 있다. 안동권씨 능동재사(陵洞齋舍)의 보판각(譜板閣), 권래(權來)가 세운 한수정(寒水亭) 중수에 대한 기문이 있다.

권10은 애사(哀辭)(7), 축문(祝文)(10), 제문(祭文)(22)이다. 축문에는 백록리사(柏麓里社)에 권두경(權斗經)과 이광정(李光庭)을 추향(追享)할 때 원위(元位)인 홍준형(洪浚亨), 김성구(金聲久), 권두인(權斗寅)에 합향(合享)하는 데 대한 것 등이 있다. 제문에는 권호문(權好文), 노수신(盧守愼), 김난상(金鸞祥)의 위패를 무덤에 묻을 때의 것과, 옥당(玉堂)을 대신하여 권만(權萬)을 이조 참의로 추증할 때 지은 것 등이 있다. 그 외 권장하(權章夏), 권덕하(權悳夏), 부인 의성김씨, 아들 권우연(權宇淵), 조카 권복연(權福淵)·권기연(權祺淵)에 대한 제문이 있다.

권11은 비명(碑銘)(5), 묘지명(墓誌銘)(9)이다. 비명에는 권영하(權泳夏)의 것이 있고, 묘지명에는 종형 권명하(權命夏), 백형 권승하(權承夏) 등에 대한 것, 아들 권우연의 광기(壙記), 재종손 권상옥(權相玉)의 광지(壙誌) 등이 있다.

권12는 묘갈명(墓碣銘)(16)이다. 밀암(密庵) 이재(李栽)에 대한 것이 있다.

권13은 묘갈명(10), 행장(行狀)(5)이다. 권14는 행장(7)으로 하계(霞溪) 이가순(李家淳), 소산(小山) 권정택(權正宅), 만오(晩悟) 권재강(權載綱) 등에 대한 것이 있다.

권15는 행장(8)이다. 권재옥(權載鈺), 권정하(權靖夏) 등에 대한 것이 있다.

권16은 유사(遺事)(7), 전(傳)(3)이다. 유사에는 유치명, 권사협(權思浹), 족숙 권재성(權載聲), 부친 권재덕(權載德), 생부 권재륜(權載綸), 생모 진성이씨 등에 관한 것이 있다.

권17은 부록으로 면우 곽종석, 족질 권세연(權世淵) 등이 지은 만사 12편, 김흥락, 족손(族孫) 권제영(權濟寧) 등이 지은 제문 10편, 김흥락이 지은 행장, 종여서(從女婿) 이만도(李晩燾)가 지은 묘갈명이다. 권말에 공의 손자 권상기(權相耆)가 지은 발문이 있다.

본 〈이재집〉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에서 구두점이 찍힌 원문 이미지 및 컴퓨터 입력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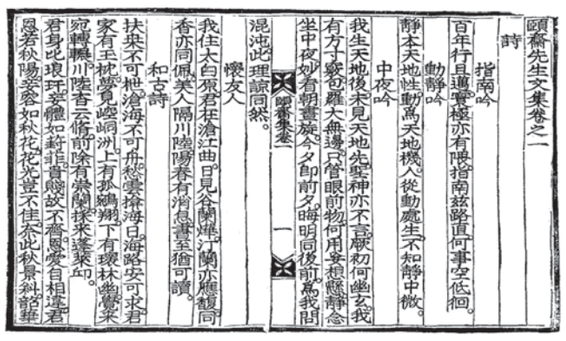
다음은 〈이재집〉 권1 처음에 나오는 시 두 수이다.

指南吟(지남음)

百年行且邁(백년행차매) 평생을 쉼 없이 가고 또 가다 보면
寰極亦有限(환극역유외) 이 땅덩이 또한 낭떠러지가 있다네
指南玆路直(지남자로직) 이끌어 가르침은 이에 길이 곧은데
何事空低徊(하사공저회) 무슨 일로 공연스레 헤매고 있는가

動靜吟(동정음)

靜本天地性(정본천지성) 고요함은 본디 하늘과 땅 본성이고
動爲天地機(동위천지기) 움직임은 하늘과 땅의 낌새가 된다
人從動處生(인종동처생) 사람은 움직이는 곳에 따라 생기나
不知靜中微(부지정중미) 고요한 가운데의 기미 알지 못하네


頤齋先生文集卷之一
詩
指南吟
百年行且邁寰極亦有限指南玆路直何事空低徊。
動靜吟
靜本天地性動爲天地機人從動處生不知靜中微。
中夜吟
我生天地後先聖神亦不言厥初何幽玄我有方寸竅曾是無邊只管眼前物何用妄想懸靜念坐中夜妙看朝晝旋今夕卽前夕晦明同後前爲我問混沌此理諒同然。
懷友人
我住太白邨君在滄江曲日見谷蘭堆江蘭亦應馥同香亦同佩美人隔川陸陽春有消息書至猶可讀。
和古詩
扶桑不可抵滄海不可舟悠雲捧海日海路安可求君家有至樂夢見蓬萬洲上有孤鶴翔下有瑤林幽覺來宛轉驚川陸杳云脩前陰有鶴捉來蓬萳邱。
君身比琅玕妾體如紵絲非貴餘故不裔恩愛自相違君恩若秋陽妾容如秋花花光豈不佳不此秋景斜韶華

단종의 역사, 보덕사와 금몽암

권혁진 박사
추밀공파, 36世, 강원한문연구소

일주문을 들어서면 좌우로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늘어섰다. 600년 이상 된 것부터 450년 이상 되는 나무가 연못 주변에 여기저기 우뚝하다.

보덕사 역사의 반은 단종의 역사다. 단종과 보덕사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으면 느티나무에게 물어봐야 한다. 600살 먹은 나무는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다가 근처에 묻히자 이름을 노릉사(魯陵寺)로 바꾸었다고 말해준다. 김신겸(金信謙, 1693~1738)은 단종의 능인 노릉(魯陵)을 중들이 여막을 짓고 지켰는데, 소나무와 잣나무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기록하였다. 복위된 뒤에 장릉(莊陵)으로 바뀌었고, 1705년 장릉의 원찰이 되었고, 1726년에 장릉의 조포사(造泡寺)가 되어 제향할 때 두부를 만드는 일과 제관을 응접하는 일을 전담하게 되었다고 450살 된 나무는 들려준다.

보덕사(報德寺)라 이름한 것은 장릉을 에워싸 호위하기 때문이라며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은 보덕사에서 시를 짓는다. "늙은 승려도 속세의 보답을 아니, 백 년 동안 종과 풍경 장릉을 보호하네"라고 읊었다. 마침 그 절에는 93세 된 스님이 있었는데, 단종이 왕위를 내어놓을 때의 일을 말하면서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눈물을 흘렸다.

극락보전 현판은 해강 김규진(金圭鎭, 1868~1933)의 글씨다. 극락보전 옆에 자리한 석종형 승탑은 1820년에 조성된 것으로 주인은 화엄대강사(華嚴大講師) 설허당대선사(雪虛堂大禪師)이다. 보덕사를 나가기 전에 해우소에 들려야 한다. 근심을 풀거나 해결한다는 뜻이지만, 슬픔과 한도 다 풀라는 뜻으로 보인다. 볼일을 보면서 몸속의 노폐물이 싹 내려가듯이 슬픔과 한도 보내야 한다. 1882년(고종 19년)에 지어졌다. 오래된 건물임에도 원형을 잘 유지되고 있다.

금몽암으로 가는 길은 인적이 뜸한 숲길이다. 숲길 끝에 사대부의 별장 같은 건물이 생소하기만 하다. 그래서 특별하다. 여기도 단종과 관련 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와서 관풍헌(觀風軒)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던 1457년 어느 날,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궁궐에 있을 때 꿈속에서 본 절과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닌가. '궁궐에서 꿈꾸었던 암자'란 뜻에서 금몽암(禁夢庵)이란 이름을 지니게 되었다. '금(禁)'자에 궁궐이란 뜻이 있다.

임진왜란 때 훼손되었으나 1610년에 영월군수 김택룡(金澤龍)이 열다섯 칸짜리로 보수하고 노릉암(魯陵菴)으로 고쳐 불렀다. 묘와 사당을 지키게 하고 나무하고 소를 먹이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1662년에 영월군수 윤순거(尹舜擧)가 다시 중수하고 지덕암(旨德菴)으로 고쳐 불렀다. 1698년에 단종이 복위되고 보덕사(報德寺)가 원당이 되자 폐사되었다가, 1745년에 나삼(羅蔘)이 옛터에 암자를 다시 세우고 금몽암이라 하였다.

많은 문인이 장릉에 참배했다가 금몽암에 들려 시를 남겼다. 이상수(李象秀, 1820~1882)도 금몽암에 들렸다가 시를 한 수 짓는다.

깊은 가을에 멀리 나그네 이르니
遠客秋深到
저물녘에 외로운 스님 돌아오네
孤僧日暮還
소쩍새는 울었다 쉬다 반복하며
杜鵑啼歇否
단풍잎은 모두 알록달록하네
楓葉盡成斑

만추에 금몽암을 찾았다. 금몽암으로 가는 숲길은 단풍잎으로 붉게 물들었다. 마치 두견새의 목에서 나온 피가 묻은 것 같다. 때마침 두견새는 단종의 넋인 양 계속 운다. 그길로 스님은 탁발하러 나갔다가 늦게서야 돌아왔다.

울산 동구종친회 야유회

노자산 전망대에서

안동권씨 울산 동구종친회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권태봉 회장을 비롯해 회원 부부동반으로 약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6일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이번 야유회에는 권혁환 울산종친회 사무처장, 권오달 청장년회 고문, 권명달 청장년회장, 권기대 청장년회 총무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권원기 동구종친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출정식을 진행하였으며 권태봉 회장은 인사말에서 청장년회 임원진들의 참석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였고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했던 야유회인 만큼 종친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권혁환 울산종친회 사무처장의 격려사와 권오달 청장년회 고문, 권명달 청장년회장, 권기대 청장년회 총무의 인사말이 있었다. 야유회 코스로는 세계최대의 동굴법당이 있는 일붕사(경남의령)를 둘러보고 총45대의 캐빈과 1.56km 구간의 거제 파노라마케이블카를 타고 노자산의 단풍과 절경을 감상하고 정상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마지막 코스로는 6.25전쟁중 북한, 중공군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세워진 포로수용소를 관람하고 귀가하였다. 오랜만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종친간의 결속을 다지며 힐링을 하는 야유회가 되었다.

울산종친회 총무부장 권응목